

문헌을 통해 살펴 본 정조의 사상체질

김달래 · 김선형*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사상체질과

Abstract

The King Jeong-Jo's Sasang Constitution, Which was Based on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朝鮮王朝實錄), Hong Je jun Se(弘齋全書), GukSoBoGam(國朝寶鑑)

Kim Dal-Rae, Kim Sun-H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East-West Neo Medical Center, Kyung-Hee Univ.

1. Objectives

Jeong-Jo's death has many mystery.

So we understand rightly Jeong-Jo's death. we inspect closely medical records of 20 days before death(in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朝鮮王朝實錄), Hong Je Jun Se(弘齋全書), GukSoBoGam(國朝寶鑑).

We understand medical treatment before death. It is based on Jeong-Jo's Constitution. So we trace the cause of a Jeong-Jo's death rightly.

2. Methods

According to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朝鮮王朝實錄), Hong Je Jun Se(弘齋全書) GukSoBoGam(國朝寶鑑), We found out Jeong-Jo's Sasang constitutional element. We point on Jeong-Jo's nature and emotion, temperament and talent, features and way of speaking, physical appearance, healthy state, ordinary symptom, pathological syndromes and pharmacology. so documentary records was worthy of notice.

3. Results and conclusions

1. Jeong-Jo has prominent cheekbones, flat face. It belong to Tae-eum.
2. Jeong-Jo's physical appearance is mild, around, large. It belong to Tae-eum.
3. Jeong-Jo's favorite food and herb were belong to Tae-eum interior febrile disease herb. which is Exhale Dispersing Qi
4. So even though Jeong-Jo is Tae-eum, He had a weak body. It main cause that Smoking, insomnia, heavy work, Hwa disease.
5. Jeong-Jo's is Interior febrile disease induced from the liver affected by heat in Tae-eumin

Key Words : Jeong-Jo's Sasang Constitution, Jeong-Jo's Death, Killing by Poison.

• 접수일 2009년 03월 05일; 승인일 2009년 03월 23일
• 교신저자 : 김선형
134-727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49번지 경희동서신의학병원
체질개선클리닉

Tel : +82-2-440-6252 Fax : +82-2-440-7143
E-mail : peaceful-sea@hanmail.net

•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차세대기술개발사업 중 지능형 한방
컨텐츠 개발(10028438)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 졌음

I. 緒 論

조선 후기 사회의 변혁을 주도했던 정조는 25세라는 어린 나이에 즉위(1777)해서 한창 일할 나이인 49세(1800년)에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되고, 이어서 즉위한 순조는 정조가 시도했던 다양한 일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한일 합방에 이르기까지 국운이 쇠퇴하게 된다. 조선 건국 초기 세종이 국운을 일으켰다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쳐 국가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민심이 흉흉했던 후기 조선사회를 어느 정도까지 일으켰던 영조와 정조의 치세가 한 세대만 더 지속되었다라도 상당한 수준에 올랐을 것이다. 특히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하고, 탕평책을 실시하였으며, 1777년을 기점으로 100년간의 역(曆)을 미리 계산한 『천세력(千歲曆)』을 1782년에 편찬·간행했다. 또한 재위 중에는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사회문제가 되었으나, 서학의 발흥은 정학(正學)인 주자학이 융성하면 저절로 없어질 것으로 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등 뛰어난 임금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기에 잘만 했으면 서세동점의 근세 역사에서 제대로 힘조차 쓰지 못했던 치욕을 기록하지 아니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갖게도 한다.

정약용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서 의원을 시켜 정조를 죽인 정승이 심환지였고, 그 독약이 연훈방이라고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항간에는 수은 중독에 의한 독살설이 널리 유포되었다. 몇몇 소설과 드라마의 성공 이후에는 일반에게는 통설이 되었다.^{2,3,4,5} 하지만 정조의 진료기록을 제대로 설명해 놓은 것이 없으며 또한 진료기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조의 평소 체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상의학에서는 체질을 구별할 때 성정, 체형상, 용모사기, 평소의 몸의 상태(소증), 아플때의 몸의 상태(병증), 질병에 반응하는 몸의 양상등을 모두 참조한다.⁶

본인은 조선왕조실록 홍제전서 승정원 일기등을 참고로 하여 정조의 성정, 체형상, 용모사기, 평소의 몸의 상태(소증), 아플때의 몸의 상태(병증), 질병에 반응하는 몸의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일관성있는 맥락이 있음을 찾아 내었다.

평소 자신의 기본 체질이 온체질이라고 생각하여 처방을 구상하였고 무를 상복하기도 하였다. 어의인

강명길이 정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된 것은 고암심신환과 청심음을 사용한 후이다.

정조는 수민묘전이나 일득록에서 사람마다 체질의 차이가 있음을 언급해 놓았다. 하지만 막상 진료에 있어서는 찬약과 더운약 만을 생각하였고, 태음인 체질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본인은 정조의 독살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망 전 진료기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망 전 진료기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정조의 체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질의학을 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정조의 평소 체질이 태음인 이었는데 황련이나 백호탕 등의 랑제가 적절한 작용을 못하고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하여 온체와 보양만을 주장한 진료부(어의, 정승)의 주장이 안타깝다. 수은에 의학 독살설이 아니더라도 급격히 사망에 이르는 응급질환은 체질변증을 하였다고 해도 조선시대 의학으로는 병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현대에도 발병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르는 질환이다 하겠다. 여기서는 정조의 체질을 살펴보아서 정조의 독살설 및 정조의 사인추정에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研究方法

조선왕조실록⁷ 홍제전서⁸(일득록, 훈어) 국조보감⁹ 등을 참고로 정조의 체질성정 체형 소증 병증)을 나타내어 주는 문헌을 찾아서 정리했다.

성정, 얼굴의 특징, 체형, 용모사기, 평소의 몸의 상태(소증), 아플 때의 몸의 상태(병증), 질병에 반응하는 몸의 양상을 정리했다.

본문에서는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조의 태음인특성이 들어난 구절 뿐만 아니라 체질적 기준이 될 수 있는 설명을 한 문장들을 그대로 정리했다.

이중 저자의 견해인 태음인 특성은 고찰부분에서 간단하게 의견을 나타내었다. 처방부분은 논문의 분량상 간략하게만 서술했다.

Ⅲ. 本 論

1. 정조의 체질

1) 성정

(1) 급하다. 참으려 노력한다.

正祖 자신이 표현한 性格(성격)을 살펴보면 “내 성품이 잘 참는 성격이 못 되어 사람들이 아첨하고 굴종하는 태도를 보면 반드시 통박하고 배척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원망을 많이 샀다. 등극한 이래 혹독하게 비방을 받아 소문을 감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 것도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일특록에 극기를 강조해 놓기 위한 구절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평소에 성격이 급하면서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정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²⁾

또 “나는 태양증(太陽證)이 있어서 부딪치는 곳마다 드러난다. 교묘하게 아첨하고 비위 맞추는 사람들 보기라도 하면 그를 매우 혐오하여 차마 똑바로 쳐다 보지를 못한다.”³⁾

(2) 과묵하며 웃어른께는 매우 다정다감하다.

정조실록 중에서 정조대왕 행장을 보면 “왕은 8~9살이 되자 더욱더 장중하고, 별로 말이 없었으며, 조금 하게 말하거나 당황하여 얼굴 빛이 변하는 일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⁴⁾라고 적고 있다. 또 효의왕후의 천릉지문에는 “정조는 8~9세 때부터 더욱 씩씩하고 과묵(寡默)하여 성급하게 말하거나 성급한 안색이 없었다.”⁵⁾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성정이 과묵하고 장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일특록에서 정조가 자신의 성정을 표현했던 것과 차이를 나타낸다.

2. 체형기상과 용모사기

1) 어진에서의 얼굴형

선원보의 어진을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광대뼈가 뚜렷하고 눈이 가늘고 올라갔으며 입술이 두툼한 편이다. (Fig. 1. 선원보의 어진) 당시 실제로 존재하던 정조의 어진을 보고 그린 것으로 정조의 실물에 가까운 것을 알려져 있다.

현릉원의 문인상도 정조의 모습을 본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현릉원에는 문인석과 무인석의 석상이 있는데, 사도세자를 모시는 형국이다(Fig. 2). 정조가 당대의 최고의 조각가였던 정우태를 초빙하여 제작한 것으로 사도세자를 향한 정조의 효성을 나타내고 있다. 석상은 모습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며, 이 문인석의 모습은 선원보의 정조 어진과 비슷한 기상을 느끼게도 한다.⁵⁾

2) 문헌에 따른 체형기상과 용모사기

얼굴형과 평소근력을 나타내 주는 구절 행장부분



Fig. 1. 선원보의 어진

2) 『弘齋全書卷百七十七』 「日得錄十七 訓語四」 予有太陽證。觸處輒露。見人或似巧佞側媚則甚惡之。不忍正視。苟有直諫敢諫之士。豈不嘉其人而喜受其言乎。
3) 『弘齋全書卷百七十七』 「日得錄十七 訓語四」 予有太陽證。觸處輒露。見人或似巧佞側媚則甚惡之。不忍正視。苟有直諫敢諫之士。豈不嘉其人而喜受其言乎。
4)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127卷」 八九歲以後益莊默。無疾聲遽色。
5)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附錄 行狀」 王, 自八九歲, 益莊默無疾聲遽色。



Fig. 2. 현릉원의 문인상

에서 정조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다. 체형기상과 용모사기에 관해서는 출생 시 묘사해 놓은 문헌에서 특히 상이 특이 했음과 근력이 좋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⁶⁾, 그리고 순조대왕 행장에서 정조를 비유하여 나타낸 구절 중에 체상이 풍만하고 관대하다고 서술한 것을 볼 수 있다.

정조실록 중에서 정조대왕 행장을 보면 “급기야 왕이 탄생하자 우렁찬 소리가 마치 쇠북소리와도 같아서 궁중이 다 놀랐으며, 우뚝한 콧날에 용상의 얼굴과 위아래 눈자위가 평평지민 눈에, 크고 깊숙한 입 등의 것한 모습이 장성한 사람과 같았다.”⁸⁾라고 했다.

그리고 순조실록의 순조대왕 행장에도 정조의 일

굴모습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순조) 왕은 용모가 준수하여 우뚝한 콧마루에 용의 얼굴을 하였고, 네모난 입에 겹으로 된 턱이 정조와 똑 같았다.”⁹⁾라고 했다.

한편 정조의 근력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정조 16년(1792년) 10월 30일 기사에서 “춘당대 에서 활쏘기를 하여 10순에 49발을 맞혔다. 근일에 와서 10순을 다 쏜 적이 없었는데, 오늘에야 10순을 다 쏘았다.”¹⁰⁾라면서 기뻐서 각신에게 문방 용구를 나눠주고 고풍(古風)을 내린다¹⁰⁾. 이것은 근력이 강하였음을 나타내주는 구절이다. 이처럼 42세 때 정조의 근력은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소증과 병증

1) 정조가 서술한 본인의 체질

정조는 자신에 대해 온제를 복용하지 못하는 체질로 이야기 하고 있다. 수민묘전을 통해서 나타나듯이 정조는 사람마다 체질의 차이가 있음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어의들과 대화시에도 “경들은 나의 본디 체질(氣稟)을 몰라서 그렇다. 나는 본디 온제(溫劑)를 복용하지 못하는데 음산하고 굳은 날에는 그와 같은 약들을 더욱 먹지 못하니, 그 해로움이 틀림없이 일어난다. 오늘과 같은 날씨에 어찌 이러한 약을 복용할 것인가. 궁중에 여러 해를 출입한 각신(閣臣)은 반드시 나의 체질을 알 것이다. 체질로 헤아려보고 사리로 참작할 때 오늘은 결코 복용할 수 없다.”¹¹⁾라고 표현하여 본인의 체질에 온제가 맞지 않음을 서술하고 있다.

6) 『朝鮮王朝實錄』 『英祖實錄 **年』 語筵臣曰: “元孫諱訖, 猶不釋卷, 今纔四歲, 體貌氣象, 大異凡兒, 天將祚宋歟?”
 7) 『國朝實錄』 『正祖即位年 1776年』 신미년(영조 27, 1751) 탄생함에 미쳐 울음소리가 큰 종소리와도 같았고, 우뚝한 콧날, 튀어나온 미골(眉骨), 움푹 들어간 눈, 큰 입 등 관상이 특이하였다.
 8)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16年』 及降覃訖之音, 發如洪鍾, 宮中皆驚, 隆準龍顏, 河日海口, 日表儼若長成.

9) 『朝鮮王朝實錄』 『純祖實錄 行狀』 覃訖岐嶷, 隆準龍顏, 方口重頤, 同符 正廟。
 10)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16年』 射的于 春塘臺, 十巡獲四十九矢, 又射小的一巡全獲。 下古風于閣臣, 仍與諸臣聯句。 . . . 乃下古風於閣臣。 吳載純, 徐有防, 李秉模, 朴祐源, 徐龍輔, 鄭東浚, 尹行恂, 徐榮輔, 南公徹, 金祖淳。 各半熟馬一, 檢書官以下錫賚有差。 又書下於古風紙面曰: . . . 近日試臂力, 數次射長畫, 而以十巡四十餘中, 書下古風, 卿等進箋稱謝, 適戲謂之曰: “中至四十九矢, 始可請古風。” 今日矢數, 準於設約, 茲以文房馬帖等種, 分與諸臣, 以踐言之意, 而卿等既進謝箋, 又當以古風答之, 兼欲勉之以正心立朝。
 11)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24年』 上曰: “卿等不知予自來氣稟而然矣。 予本不能服溫劑, 而至於陰濕之日, 則尤不能進此等藥, 其害必如期而至。 以今日氣, 其何以進御此藥乎? 閣臣之多年出入於近密者, 必知予氣稟矣。 揆之以氣稟, 參之以事理, 今日則斷不可服矣。”

2) 소증(素症) 및 평소에 복용하던 약

(1) 소증(素症): 면한(面汗)

영조 사후 정조가 비통해 하면 우는 구절에서 어의가 왕세손(정조)의 평소에 기허함을 논하고 있는데 이중 예로 드는 것이“예안(睿顏)을 우러러보면 한기(汗氣)가 늘 흐른다.”¹²⁾라는 구절있다.

(2) 식생활

① 평소의 식사량

적게 먹고 검소한 식사생활, 음식의 종류는 가리지 않음

반찬 수를 적게 하여 식단을 검소하게 했으며,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는 크게 가리지 않았다.¹³⁾ 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 평소 부스럼 때문에 기름진 음식은 피했다.

“나는 음식에 대해서 치우치게 좋아하는 것도 없고 또한 먹지 못하는 것도 없다. 그저 닥치는 대로 먹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상복하던 음식 약재

남초 또는 남령초

정조는 남초 즉 지금의 담배를 매우 좋아 하셨다. 일득록에는 남초라하여 담배에 대한 예찬이¹⁴⁾ 홍재전서에는 남령초라 하여 정조의 담배 사랑이 나온다¹⁵⁾.

“나는 어릴 적부터 다른 기호품은 없었으나 오직 책 읽는 것을 좋아하였으니, 연구하고 탐닉하느라 마음과 몸에 피로가 쌓인 지 수십 년에 책 속에서 생긴 병이 마침내 가슴속에 항시 막혀 있어서 혹 뜯는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즉위를 한 이래로는 책을 읽던 버릇이 일체 정무(政務)로까지 옮겨져서 그 증세가 더욱 심해졌으므로 복용한 빈랑나무 열매와 쥐눈이콩만도 근이나 포대로 계산하여야 할 정도였고,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 보았지마는 오직 이 남령초에서만 힘을 얻게 되었다. 화기(火氣)로 한담(寒痰)

을 공격하니 가슴에 막혔던 것이 자연히 없어졌고, 연기의 진액이 폐장을 윤택하게 하여 밤잠을 안온하게 잘 수 있었다.” 라고 하여

평소에 무 16)를 상복하셨다.

하지만 정조가 태음인 체질이면서도 소식을 좋아하고,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며, 가슴에 화가 오르는 병을 호소한 것은 흡연이 몸을 조하게 만들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③ 소병(素病)

정조는 소병으로 화병(火病)과 부스럼등이 있었다.

정조실록을 살펴 보면 정조는 즉위 이후 몇 차례 등창을 앓았으며 특히 정조 18년에는 약 80일간 부스럼 때문에 고생한 내용이 나온다¹⁷⁾.

정조18년(1794년) 7월 23일 기사에서, 우의정 이병모가 사직 상소에서 “임금의 마음은 본래부터 깨끗하고 비어 있는데 기가 한 번 용사(用事)하면 하는 일이 사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자주 일어나고 부스럼이 생기는 것은 모두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¹⁸⁾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정조가 사망하기 13일 전인 1800년 6월 15일에 심환지에게 쓴 편지에서 “뱃속의 화기가 올라가기만 하고 내려가지는 않는다. 여름 들어서는 더욱 심해져 그동안 황련을 몇 첩이나 먹었는지 모르겠다. (중략) 차가운 온돌의 장판에 등을 붙인 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일이 모두 고생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평소 소에 화병과 부스럼 때문에 고생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정조는 24년의 재위 기간 동안 여러번의 부스럼을 앓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國朝寶鑑』「第75卷 正祖24年1800年」, 3월 어릴 때는 밥을 매우 적게 먹었고 조식 때마다 무(蘿蔔)만을 먹었다. 기름진 음식을 지금까지 많이 먹지 않은 것도 반드시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근력이 점차 쇠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17) 『朝鮮王朝實錄』「正祖實錄 18年」, 召見藥院提調。上曰: “頭癩猶屬餘事。自五月念後, 專廢寢睡, 數日以來, 頭疼轉甚, 疹毒肆氣, 且有痢漸矣。” 都提調 洪樂性, 請醫官入診, 議定倉廩散, 提調 鄭昌順 請直宿, 不許。

18) 『朝鮮王朝實錄』「正祖實錄 18年」, 右議政 李秉模 上 劄曰: “... 聖心本自澄虛也, 氣一用事而舉措 舛。膈候之頻發, 癩患之彌留, 莫不是爲之源。

12) 『朝鮮王朝實錄』「英祖實錄 52年」, “何不顧此而過制哭泣乎? 仰瞻睿顏, 汗氣恒流, 以此觀之, 氣虛可知。當以一錢重蓼, 煎粟米飲以進矣”

13) 『弘齋全書 178卷』「日得錄 18 訓語 5」

14) 『弘齋全書 178卷』「日得錄 18 訓語 5」

15) 『弘齋全書 52卷』「策問五 · 南靈草」

17년(1793년) 7월 2일 기사에 보면 정조가 부스럼병에 걸렸다는 기사가 있고¹⁹⁾, 7월 4일 기사에서 정조는 “머리에 난 부스럼과 얼굴에 생긴 종기가 어제부터 더욱 심해졌다. 씻거나 약을 붙이는 것도 해롭기만 하고 약물도 효험이 없어서 기가 더 막히고 쌓여서 화가 더 위로 치밀어 오른다. ...경락에 침을 맞는 것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여러 의원들에게 물어서 아뢰라.” 하였고, “마침내 세 부위에 침을 맞았다.”²⁰⁾라고 적혀 있다.

정조18년(1794년) 7월 13일 기사에서 “부스럼이 난 지 달포가 되어 내의원에서 숙직을 청하다”²¹⁾라고 기록되어 있고, 정조는 “머리의 부스럼은 하찮은 일이다 미는 5월 20일 후부터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며칠 전부터 두통이 점점 심하고 진독이 뻗힌 대다가 이질 증세까지 있다.”²²⁾ 하였고, 의관을 불러들여 진찰하고 창릉산(倉廩散)을 처방받는다.

④ 처방(사용하여 효과를 본 처방)

七寶美髯丹, 古庵心腎丸, 清心飲²³⁾, 交感丹²⁴⁾ 등이 있다.

- 19)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17年」上有癩候。
 20)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17年」乙未/教曰: “頭癩面腫, 昨又添劇, 洗付有害, 茶湯無效, 氣愈菴而炎益上. . . 經絡受鍼當否, 問于諸醫以啓.” . . . 遂受鍼三部.
 21)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18年」戊戌/上有癩候, 浹月未平復, 藥院請直宿, 不許
 22) 『朝鮮王朝實錄』 「正祖實錄 18年」召見藥院提調. 上曰: “頭癩猶屬餘事. 自五月念後, 專廢寢睡, 數日以來, 頭疼轉甚, 疹毒肆氣, 且有痢漸矣.” 都提調 洪樂性, 請醫官入診, 議定倉廩散, 提調 鄭昌順請直宿, 不許.
 23) 『弘齋全書卷百七十八』 「日得錄十八 訓語五」各有其效. 嘉靖初. 邵應節獻其方. 即七寶美髯丹也. 予於年前製此丹. 連進數劑. 不覺有自然之神驗矣. 古庵心腎丸. 可謂無雙聖藥. 予於少時多熱. 纔能食食. 日喫牛黃金銀花之屬以爲課. 自二十歲後至三十後. 喫心腎丸. 如蘇合元之大者. 日吞百許箇. 如是者十餘年. 間又作湯兼進. 前後所喫. 可以石計. 此首醫康命吉. 自春邸時朝夕不離. 習知予氣稟而然耳. 昔有二故相聞此. 一云極不可. 一云極可. 大抵藥味亦隨其氣稟而然. 予於鹿茸. 年來不近口. 而又有二重臣. 一則偏嗜鄉茸. 不足. 代以唐茸. 一重臣聞鹿茸二字. 輒掉頭. 性味之合與不合. 如人見之各殊. 有如此. 清心飲. 甚好於氣熱者. 蓋蓮子之爲功. 即清心補脾. 降火而然也. 與逍遙散兼飲. 歲以爲常者. 止渴與清熱. 不可但以克伐之燥劑責其功. 若蓮子能潤耳. 逍遙散中芍藥當歸等種亦然. 而逍遙散即醫學入門癩疽藥也. 又治婦人月經不足之證. 且不載於醫鑑. 而康命吉素富於醫術. 排衆議進此藥. 乃得奇效.

연자육에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있다. 일득록에서 ‘청심음(淸心飲)은 기질이 뜨거운 사람에게 매우 좋으니, 이는 대개 연밭[蓮子]의 효능이 심장을 맑게 하고 비장(脾臟)을 보강함으로써 화기(火氣)를 강하(降下)시켜서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소요산(逍遙散)과 함께 마시기를 매년 상례(常例)로 삼는 것은 갈증(渴症)을 멈추고 열(熱)을 씻어 내는 데는 단지 깎아 내리는 ‘조제(燥劑)’만 가지고 그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연자육(蓮子肉) 같은 것은 기운을 부드럽게 해 주는 성질이 있는데, 소요산 중의 작약(芍藥)과 당귀(當歸) 등의 종류도 역시 그러하다.”²⁵⁾ 라고 하여 효과를 본 예를 이야기 하고 있다.

⑤ 단미

무, 빈랑나무 열매, 쥐눈이콩, 금은화, 우황, 황련

⑥ 섭생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을 보면 태음인은 빗질을 자주 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정조 또한 흥재전에서 본인인 빗질을 하여 효과를 본 이야기를 적고 있다. 젊었을 적에 ‘매일 빗질을 하라고 권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년에 들어서 비로소 빗질을 하기 시작했더니, 머리와 시력이 맑고 시원해졌으며 잠이 저절로 왔다.’²⁶⁾

- 24) 『弘齋全書卷百七十八』 「日得錄十八 訓語五」予之數十年受用而得力者交感茶. 其方不過曰便香附, 白茯苓, 橘皮. 而時加人蔘沉香而進之尤好. 近來水土人多滯痰. 多喫泥滯之藥. 則雖鹿茸, 地黃. 反無益焉. 兼用疏達之劑. 則香附, 茯苓勝於蔘朮. 此意不可不知.
 25) 『弘齋全書卷百七十八』 「日得錄十八 訓語五」各有其效. 嘉靖初. 邵應節獻其方. 即七寶美髯丹也. 予於年前製此丹. 連進數劑. 不覺有自然之神驗矣. 古庵心腎丸. 可謂無雙聖藥. 予於少時多熱. 纔能食食. 日喫牛黃金銀花之屬以爲課. 自二十歲後至三十後. 喫心腎丸. 如蘇合元之大者. 日吞百許箇. 如是者十餘年. 間又作湯兼進. 前後所喫. 可以石計. 此首醫康命吉. 自春邸時朝夕不離. 習知予氣稟而然耳. 昔有二故相聞此. 一云極不可. 一云極可. 大抵藥味亦隨其氣稟而然. 予於鹿茸. 年來不近口. 而又有二重臣. 一則偏嗜鄉茸. 不足. 代以唐茸. 一重臣聞鹿茸二字. 輒掉頭. 性味之合與不合. 如人見之各殊. 有如此. 『弘齋全書卷百七十八』 「日得錄十八 訓語五」清心飲. 甚好於氣熱者. 蓋蓮子之爲功. 即清心補脾. 降火而然也. 與逍遙散兼飲. 歲以爲常者. 止渴與清熱. 不可但以克伐之燥劑責其功. 若蓮子能潤耳. 逍遙散中芍藥當歸等種亦然. 而逍遙散即醫學入門癩疽藥也. 又治婦人月經不足之證. 且不載於醫鑑. 而康命吉素富於醫術. 排衆議進此藥. 乃得奇效.

Ⅲ. 考 察

정조의 독살설은 정약용에 의해서 제시된 이후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다. 하지만 사망 전 20일의 진료 기록을 분석한 예는 없다. 진료기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조의 평소 체질과 생활 습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조선왕조실록 홍제전서 국조보감을 중심으로 문헌을 살펴 보았다.

체질은 성정, 체형상, 용모사기, 평소의 몸의 상태(소증), 아플때의 몸의 상태(병증), 질병에 반응하는 몸의 양상으로 알 수 있다. 평소 의학에 관심이 많았던 정조는 신하나 어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음식이나 약에 대한 본인의 반응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어 태음인 이열증의 맥락을 보여 주고 있다.

성정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타고 태어난 성격은 매우 급하고 다열질 적이지만 일득록과 홍제전서에 적힌 것 처럼 스스로의 수행에 많은 노력을 보였었다. 강하기도 했지만 눈물도 많고 다정다감한 성격을 보이고 있다.

정조의 얼굴형은 선원보의 어진을 기준으로 살펴 보자면 광대뼈가 뚜렷하고 눈이 가늘고 올라갔으며 입술이 두툼한 편이다(Fig. 1).

선원보의 어진은 당시 실제로 존재하던 정조의 어진을 보고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얼굴의 특징이 태음인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 태음인의 얼굴형은 금계비방에서 말하듯 용모가 아래로 흐르는 듯 후덕하고 중후하며 기상이 엄숙하다¹⁰. 조의학에서 머리와 얼굴이 넓적하거나 하관이 넓다¹⁰라고 묘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원보의 어진과 매우 유사하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왕들의 초상화는 조선조 27명의 국왕 중에서 태조, 영조, 철종, 고종, 순종의 어진 뿐이다. 근세의 고종이나 순종은 사진자료가 위주이다 보니 초상화로 전해진 것은 태조, 영조, 철종의 3명뿐이고, 우리가 매일 접하는 1만원권의 주인공인 세종의 어진



Fig. 3. 수원 화녕전의 어진(공인 어진)

조차도 상상으로 그린 것이며, 정조의 어진도 전해지지 않았다. 공인된 정조의 초상화는 1989년 이길범 화백이 실록에 여러 번 언급된 정조의 얼굴특성과 성격특성을 참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그린 것 일뿐인데,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다 보니 어느새 정조의 체형과 얼굴이 원래 그런 것인 것 처럼 알려져 있다. 다행스럽게 정조의 초상화로 알려진 또 다른 그림이 전해지는데, 바로 전주이씨 족보인 '선원보'에 들어 있는 초상화이다. 실록에 기록된 정조의 얼굴 특성에 일치하는 그림은 수원 화녕전에 걸린 1989년 이길범 화백이 그린 공인된 정조의 어진(Fig. 3) 보다는 선원보의 그림이 더 정조의 실제 모습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정조의 체형이나 모습이 상세히 들어난 구절은 많지는 않다. 다만 태어나자 마자의 얼굴이 정조행장에 순조에게 빗대어 설명한 것이 순조 행장에 나타난다. 하지만 왕의 모습을 표현 한 것이므로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도 있다.

출생 시 묘사해 놓은 문헌에서 특히 상이 특이했음을 말하고 있다. 이후 성인기에는 근력이 좋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²⁷⁾²⁸⁾이 있다. 체상이 풍만하고 관대

26) 『弘齋全書卷百七十八』 「日得錄十八 訓語五」, 少時。人有勸日梳者。近年始爲之。頭目清快。睡思自至。攝生家梳頭。常以百二十爲度。或云梳髮千遍。其髮不白。黃庭經曰。髮宜多櫛。今人之罕能日梳者。政坐於夙興之不能爲也。

27) 『朝鮮王朝實錄』 「英祖實錄30年」 英宗 語筵臣曰:

하다고 서술한 것을 볼 수 있다.

평소 정조의 몸의 상태를 언급해 놓은 문헌을 살펴 보면 자주 화병으로 단미와 접약을 복용한 기록이 나온다.

“왕세손때 얼굴에 늘 땀이 있다”라고 어의가 언급한 구절이 있다.

정조 스스로가 이야기한 본인의 체질은 온체를 복용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 한 것이 가장 크다. 평소에 도 인삼이 들어있는 경옥고를 한 숟가락 만 먹어도 오랫동안 구미를 잃음이 나타났다.

여러 문헌에 평소에 복용한 약과 효과를 본 약이 적혀있다.

평소의 식사습관은 적게 먹고 검소했으면 조선왕조신록에는 무를 상복했음이 흥재전서에는 쥐눈이콩 빈랑나무 열매 등을 상복한 내용이 나온다. 이중 특히 무와 쥐눈이콩은 태음인에게 이로운 음식이다.

식사생활에서는 음식의 종류는 가리지 않았으나 소식함을 근본으로 삼고 있다.

대부분의 태음인 체질은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정조가 음식을 좋아하지 않은 것은 남초, 남령초라 하는 담배를 좋아한 애연가임을 보면 알 수 있다.

흡연은 태음인에게는 발산지기를 강하게 해서 이로울 수 있지만 약리적으로는 식욕을 억제하고 수면을 방해하며 뇌혈관질환의 원인이 된다.

어려서부터 화병이 있었던 정조가 남초를 예찬하고 즐기는 것이 나타난 구절을 살펴보면 정조의 사망 원인이 뇌혈관 질환에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도 가능하게 한다.

정조가 태음인 체질이면서도 소식(小食)을 좋아하고,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며, 가슴에 화가 오르는 병을 호소한 것은 흡연이 몸을 조(燥)하게 만들기 때문이라 여겨진다.²⁹⁾

소병(素病)으로 화병(火病)과 부스럼등이 있었다. 정조실록을 살펴 보면 정조는 즉위 이후 몇 차례 등창

을 앓았으며 특히 정조 18년에는 약 80일간 부스럼 때문에 고생한 내용이 나온다.³⁰⁾ 이후 정조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조선왕족실록을 살펴보면 내의원의 질료가 잦아짐을 볼 수 있다.

정조는 의약에 관심이 많아서 본인이 사용한 약이나 음식에 대해서는 문헌 곳곳에 그 반응을 언급해 놓고 있다.

정조가 주로 복용한 약들은 수승화강(水升火降)을 주로 하는 약들이었는데 칠보미염단(七寶美髯丹), 고암심심환(古庵心腎丸), 교감단(交感丹)³¹⁾처럼 소음인 약과 소양인 약들이 섞여 있다. 이중 연자육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으니. . . 청심음(淸心飲)은 기질이 뜨거운 사람에게 매우 좋으니, 이는 대개 연밭[蓮子]의 효능이 심장을 맑게 하고 비장(脾臟)을 보강함으로써 화기(火氣)를 강하(降下)시켜서 그러한 것이다. ³²⁾

단미로는 태음인 음식인 무와 쥐눈이 콩 우황 소음인 약인 빈랑나무 열매 소양인 약인 금은화, 황련을 사용했음이 나타난다.

하지만 사망 시 기록을 살펴보면 백호탕은 큰 효과

30) 『朝鮮王朝實錄』「正祖實錄18年」召見藥院提調。上曰：“頭癩猶屬餘事。自五月念後，專廢寢睡，數日以來，頭疼轉甚，疹毒肆熾，且有痢漸矣。”都提調 洪樂性，請醫官入診，議定倉糜散，提調 鄭昌順 請直宿，不許。

31) 『弘齋全書卷百七十八』「日得錄十八 訓語五」予之數十年受用而得力者交感茶。其方不過日便香附，白茯苓，橘皮。而時加人蔘沉香而進之尤好。近來水土人多滯痰。多喫泥滯之藥。則雖鹿茸，地黃。反無益焉。兼用疏達之劑。則香附，茯苓勝於蔘朮。此意不可不知。

32) 『弘齋全書卷百七十八』「日得錄十八 訓語五」各有其效。嘉靖初。邵應節獻其方。即七寶美髯丹也。予於年前製此丹。連進數劑。不覺有自然之神驗矣。古菴心腎丸。可謂無雙聖藥。予於少時多熱。纔能食食。日喫牛黃金銀花之屬以爲課。自二十歲後至三十後。喫心腎丸。如蘇合元之大者。日吞百許箇。如是者十餘年。間又作湯兼進。前後所喫。可以石計。此首醫康命吉。自春邸時朝夕不離。習知予氣稟而然耳。昔有二故相關此。一云極不可。一云極可。大抵藥味亦隨其氣稟而然。予於鹿茸。年來不近口。而又有二重臣。一則偏嗜鄉茸。不足。代以唐茸。一重臣聞鹿茸二字。輒掉頭。性味之合與不合。如人見之各殊。有如此。淸心飲。甚好於氣熱者。蓋蓮子之爲功。即淸心補脾。降火而然也。與逍遙散兼飲。歲以爲常者。止渴與淸熱。不可但以克伐之燥劑責其功。若蓮子能潤耳。逍遙散中芍藥當歸等種亦然。而逍遙散即醫學入門癰疽藥也。又治婦人月經不足之證。且不載於醫鑑。而康命吉素富於醫術。排衆議進此藥。乃得奇效。

“元孫講訖，猶不釋卷，今纔四歲，體貌氣象，大異凡兒，天將祚宋歟?”

28) 『國朝寶鑑』「第75卷 正祖24年1800年」신미년(영조 27, 1751) 탄생함에 미쳐 울음소리가 큰 중소리와도 같았고, 우뚝한 콧날, 튀어나온 미골(眉骨), 움푹 들어간 눈, 큰 입 등 관상이 특이하였다.

29) 『弘齋全書 178卷』「日得錄 18 訓語 5」

를 거두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정조가 상복한 무 우황 연자육은 태음인의 호산지기를 도와서 이열(裏熱)을 제거하는 약들이다.

또한 흥미가 가는 구절은 섭생에서 빗질을 자주 하여 효과를 본 것을 언급한 구절이다. 동의수세보원에서는 태음인 체질에게는 머리 빗질을 권하고 소양인 체질에게는 머리 빗질을 금하고 있다. 이 또한 태음인의 호산지기를 북돋아 주어 건강하게 하는 섭생법이다.³³⁾

사망 전에는 정조의 병증의 변화가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발병 시 인삼이 든 약을 복용하고 몸에 병이 더해진 것이다. 중간에 백호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자 어의들이 온제로 처방을 바꾸었지만 정조는 온제의 처방을 여러 차례 거부한다. 이때 사용한 백호탕의 석고 인삼들은 소양인과 소음인의 약이다.⁶⁾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복약을 할 때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 하고 있었으며 평소에도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상복하는 약재와 음식을 잘 조절하였다.

이러한 성정, 체형, 병증, 평소 섭생법 종합하여 볼 때 정조가 태음인 이열증의 소유자였음을 알아 볼 수 있다.

이것은 정조 독살설을 살펴보기 위해서 사망 전의 기록인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바탕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V. 結 論

1. 정조의 얼굴형은 태음인의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넓은 얼굴형이다.
2. 정조의 체형은 관대한 편이다.

3. 정조가 상복한 약이나 음식 중에 태음인의 리열을 내려 주는 것이 많다.

4. 흡연, 소식, 수면부족으로 태음인이지만 체력이 약했다.

5. 정조의 체질은 태음인 이열병증의 소유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6. 정조의 사망원인 중 독살설에 관해서는 체질병증에 맞지 않는 처방을 장기 복용함으로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VI. 參 考 文 獻

1. 정약용. CD-ROM 興猶堂全書. 민족문화추진회. 서울, 2001.
2. 이인화. 영원한 제국. 세계사, 서울, 1993.
3. 이덕일. 조선왕 독살사건. 단산초당, 2005; 178.
4. 한규라. 누가 그들을 죽였는가. 책이 있는 마을, 서울, 2008:11-44.
5. 유봉학. 정조대왕의 꿈. 신구문화사, 서울, 2001;15-9, 61-6.
6.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사상의학. 집문당, 서울, 2004:135, 198, 602.
7.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정조실록, 2005. Available from URI: <http://sillok.history.go.kr>
8. 한국고전번역원, 弘齋全書 제178권, 日得錄18, 訓語. Available from URI: <http://www.minchu.or.kr>
9. 한국고전번역원. 弘齋全書 제52권, 책문5, 남령초. Available from URI: <http://www.minchu.or.kr>
10. 한국한의학연구원. 한방진단과 치료의 객관화 및 산업화, 2003:73.

33) 『弘齋全書卷百七十八』「日得錄十八 訓語五」少時。人有勸日梳者。近年始爲之。頭目清快。睡思自至。攝生家梳頭。常以百二十爲度。或云梳髮千遍。其髮不白。黃庭經曰。髮宜多櫛。今人之罕能日梳者。政坐於夙興之不能爲也。